

## 오경 문서비평의 새로운 방향 찾기: 출애굽기 13장 17절-14장 31절을 중심으로\*

이은우(장신대)

### 1. 들어가며

벨하우젠(J. Wellhausen) 이후<sup>1</sup>에 고전적 신문서 가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J, E, P 자료를 가정하고, 신명기는 독립적인 작품으로 간주한다.<sup>2</sup> 이 신문서 가설은 자료들이 독립적으로 기원해서 서로서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수집가의 노력으로 한 번에 결합하였다고 가정한다. 이 신문서 주의자들은 자료의 수집가가 인식할 만한 계획이나 목표 없이 배열해서 무질서를 낳은 자료들 중에 하나로 본문을 분류하는 것으로 자

\* 이 논문은 2023년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이 논문은 제117차 한국구약학회 추계학술대회(2021. 10. 1.)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1 J. Wellhausen, *Prolegomena to the History of Ancient Israel* (Scholars Press Reprints and Translations Series; Atlanta: Scholars Press, 1994).
- 2 J. Van Seters, "The Pentateuch," in S. L. McKenzie & M. P. Graham (eds), *The Hebrew Bible today: An Introduction to Critical Issue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8), 9.

신들의 역할을 이해한다.<sup>3</sup> 그러나 우리가 최근의 주석이나 단행본을 조사해 보면, 이 모델에 대한 엄청난 반박이나 수정을 발견하게 된다.<sup>4</sup> 렌토르프(R. Rendtorff)는 창세기의 족장들의 이야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전통들 사이의 간격을 채워주는 편집적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며 네 문서설 보다는 단편 자료들에 대한 연속적인 편집을 주장한다.<sup>5</sup> 블룸(E. Blum)은 이 주장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오경이 두 개의 연속적인, 그러나 거의 동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신명기사가의 구성층(KD)과 제사장의 구성층(KP)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sup>6</sup> 신 문서 가설에서 가장 비판받는 부분은 E 자료의 존재를 전제하는 것이다.<sup>7</sup> 최근의 학계에서는 다수의 학자가 E 자료의 존재를 거부한다.<sup>8</sup> 볼츠(P. Volz)와 루돌프(W. Rudolph) 이후에 많은 학자가 E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sup>9</sup> 전통적으로 E 자료로 구분되었던 본문은 P 이전

3 J. C. Gertz, "The Miracle at the Sea: Remarks on the Recent Discussion about Origin and Composition of the Exodus Narrative," in T. B. Dozeman, C. A. Evans, J. N. Lohr (eds), *The Boo of Exodus* (Leiden: Brill, 2014), 92.

4 윗글, 91. 각주 3번 참조.

5 R. Rendtorff, *Das überlieferungsgeschichtliche Problem des Pentateuch* (BZAW 147; Berlin: de Gruyter, 1977), trans. J. J. Scullion *The Problem of the Process of Transmission in the Pentateuch* (JSOTSup 89;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0); T. B. Dozeman & K. Schmid, "Introduction," in T. B. Dozeman & K. Schmid (eds), *A Farewell to the Yahwist? The Composition of the Pentateuch in Recent European Interpretation*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6), 2-3.

6 E. Blum, *Die Komposition der Vätergeschichte* (WMANT 57;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84); T. B. Dozeman & K. Schmid, "Introduction," 4.

7 J. C. Gertz, 윗글, 92.

8 윗글, 93; 이은우, "구약 축전의 발전 과정 연구," 「구약논단」 17권 1호(2011), 161.

9 P. Volz and W. Rudolph, *Der Elohist als Erzähler: Ein Irrweg der Pentateuchkritik?* (Giessen: Alfred Toppelmann, 1933); W. Rudolph, *Der "Elohist" von Exodus bis Josua* (BZAW 68; Berlin: Tpelmann, 1938); J. C. Gertz, "Elohist," in *Encyclopedia of the Bible and its Reception 7* (Berlin: de Gruyter, 2014), 777-781. 반면에 그누스(R. K. Gnuse)는 여전히 E 자료의 존재를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R. K. Gnuse, *The Elohist: A Seventh-Century Theological Tradition* (Eugene, OR: Cascade Books, 2017)을 참조하라.

자료(Pre-Priestly)의 하나 혹은 몇몇 재작업 층으로 구분되거나 때로는 P 이후의 첨가로 간주한다.<sup>10</sup> 최근에는 많은 학자가 J 자료의 존재도 거부한다.<sup>11</sup> 반 세터스(J. van Seters)나 레빈 (C. Levin)같은 학자는 여전히 바벨론 포로 이후의 역사 서술자로서의 J 자료의 존재를 주장하지만,<sup>12</sup> 이들의 주장은 많은 비판을 받는다.<sup>13</sup> 현재는 신문서 가설에서 J 자료로 구분하는 출애굽기 1-15장의 비제사장 자료(Non-P)와 창세기의 비제사장 자료(Non-P)가 원래의 문학적 연결점이 있는지, 혹은 족장 이야기의 비제사장 자료와 출애굽 이야기의 비제사장 자료층은 P 자료의 하나의 이야기에서만 연결되는 이스라엘의 기원에 관한 두 개의 경쟁적인 진술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논쟁을 포함한 출애굽기 1-15장의 제사장 자료와 비제사장 자료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유럽을 중심으로 한 다수의 학자들이 제사장 자료(P)에 속하지 않는 자료를 비제사장 자료(Non-Priestly Material)로 구분하며 오경 문서비평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다.<sup>14</sup> 다수의 학자들은 제사장 본문을 창조에서 시작해 적어도 시

10 J. C. Gertz, 윗글, 93; J. C. Gertz는 *Tradition und Redaktion in der Exoduserzählung: Untersuchungen zur Endredaktion des Pentateuch* (FRLANT 186;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0)에서 출 3:1-4:17를 전통적으로 J와 E 자료로 구분하는 학자들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 본문 안에는 기본 자료층과 여기에 결합한 재편집층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본문 안에 E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1 A. G. Auld, J. Blenkinsopp, E. Blum, J. C. Gertz, W. Johnstone, R. G. Kratz, T. C. Roemer, K. Schmid, M. Witte 등등). J. C. Gertz, K. Schmid & M. Witte (eds), *Abschied vom Jahwisten* (Berlin; NY: Walter de Gruyter, 2002).

12 J. Van Seters, 'The Pentateuch' in S. L. McKenzie and W. P. Graham (eds), *The Hebrew Bible* (Louisville KY: Westminster/John Knox, 1998), 3-49; C. Levin, "The Yahwist and the Redactional Link between Genesis and Exodus," in T. B. Dozeman and K. Schmid, *A Farewell to the Yahwist? The Composition of the Pentateuch in Recent European Interpretation*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6), 131-141.

13 이은우, 윗글.

14 J. C. Gertz, "The Miracle at the Sea: Remarks on the Recent Discussion about Origin and Composition of the Exodus Narrative," 95-96; 이은우, 윗글, 155-178, 특히, 161-172.

내산 본문까지 이어지는 자료로 특징짓는다.<sup>15</sup> 다른 학자들은 P 안에서 비제사장 편집층을 찾는다.<sup>16</sup> 일부 학자는 P 편집자가 이미 기록된 형태로 존재한 개별 전승 자료를 첨가하기도 했다고 주장한다.<sup>17</sup> 또 다른 학자들은 출애굽기 1-15장의 비제사장 자료의 광범위한 부분을 P 이후의 편집층 혹은 P 이야기의 핵심으로 구분하며, P 이전의 출애굽 이야기의 존재에 의구심을 제기한다.<sup>18</sup> 한편에서는 P를 독립된 문서로 간주하지만,<sup>19</sup> 다른 한편에서는 P를 편집물 혹은 편집자로 간주한다.<sup>20</sup> 전자는 오경의 최종 편집자인 Post-P가 Dtr과 P의 문서를 가지고 오경을 최종적으로 완성했다고 주장한다.<sup>21</sup> 후자는 P가 Pre-P 대본에 많은 자료를 사용해서 오경을 구성한 최종 편집자라고 주장한다.<sup>22</sup>

출애굽기 1-15장의 출애굽 이야기는 전체가 거대한 오경 설화 결정체의 핵심을 이루며, 오경 형성에 대한 최근의 논쟁에서 중요한 역할

- 
- 15 C. Levin, "The Yahwist and the Redactional Link between Genesis and Exodus," 131-141; J. C. Gertz, *Tradition und Redaktion in der Exoduserzählung: Untersuchungen zur Endredaktion des Pentateuch*.
- 16 J. Van Seters, *The Life of Moses: The Yahwist as Historian in Exodus-Numbers*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2).
- 17 E. Blum, *Studien zur Komposition des Pentateuch* (BZAW 189; Berlin: de Gruyter, 1990), 9-43.
- 18 Eckart Otto, "Die nachpriesterliche Pentateuchredaktion im Buch Exodus," in *Studies in the Book of Exodus: Redaction-Reception-Interpretation* (ed. Marc Vervenne; BETL 126; Leuven: Peeters, 1996), 61-111; Christoph Berner, "Gab es einen vorpriesterschriftlichen Meerwunderbericht?" *Bib* 95 (2014): 1-25.
- 19 J. Blenkinsopp, *The Pentateuch: An introduction to the first five books of the Bible* (New York: Doubleday, 1992); Eckart Otto, 윗글; J. C. Gertz, 윗글.
- 20 F. M. Cross,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Mass.: Cambridge, 1973), 293-325; J. Van Seters, *The Life of Moses*; W. Johnstone, *Exodus* (OTG;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0); E. Blum, *Die Komposition der Vätergeschichte*.
- 21 T. Römer, *Israels Väter: Untersuchungen zur Väterthematik im Deuteronomium und in der deuteronomistischen Traditio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0), 258-264.
- 22 F. M. Cross, 위의 책; J. Van Seters, *The Life of Moses*; W. Johnstone, 위의 책; E. Blum, 위의 책.

을 한다.<sup>23</sup> 특히 홍해 바다의 기적 이야기(출 13:17-14:31)는 이러한 오경 형성 논의에서 중심적 역할을 했다.<sup>24</sup> 이 논문의 목적은 출애굽기 13장 17절-14장 31절의 자료층 분석을 통해 최근의 출애굽기와 오경의 문서비평 연구에서 주요 난제 중 하나인 P와 비제사장 자료층의 관계와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다.

## 2. 연구사

전통적으로 학자들은 출애굽기 13장 17절-14장 31절의 홍해 바다에서의 기적 이야기가 J, E, P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했다.<sup>25</sup> 노트는 이 본문을 다음과 같이 구분했다: J; 13:20-22, 14:5b, 6(혹은 7), 9aα, 10ba, 13, 14, 19b, 20, 21aβ, 24, 25b, 27aβb, 30, 31, E; 13:17-19, 14: 5a, 6(혹은 7), 19a, P; 14:1-4, 8, 9aβb, 10abβ, 15-18, 21aαb, 22, 23, 26, 27aα, 28, 29.

그러나 14:11, 12, 25a가 J 인지 E 인지는 명확하지 않다.<sup>26</sup> 노트(M. Noth)에 따르면, P는 이 기적을 가장 단순하면서 동시에 가장 인상적인 방식으로 묘사하고 J는 가장 신비한 방식으로 묘사한다.<sup>27</sup> 다른 한

23 J. C. Gertz, 윗글, 91.

24 게르츠는 이 본문에 대한 연구(J. C. Gertz, "The Miracle at the Sea: Remarks on the Recent Discussion about Origin and Composition of the Exodus Narrative," 91-120.)에서 최근의 이런 동향을 반영한 연구를 시도했지만, Non-P를 그 특징에 따라 구분하여, 명명하지는 못했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이 본문에 나타나는 Non-P를 구분하여 명명하고, 그 특징을 설명하고자 노력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 3의 자료층 분석을 참고하라.

25 S. R. Driver, *The Book of Exodus*, Cambridge 1911; M. Noth, *Das zweite Buch Mose: Exodus/ Das Alte Testament Deutch* (Teilband 5),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3).

26 M. Noth, *Das zweite Buch Mose*, 80-95.

27 윗글, 84.

편, 벨하우젠은 이 본문에서 일반적으로 P로 간주한 것은 재앙 이야기의 제사장 문체와 어휘와는 상당히 다르다고 주장한다.<sup>28</sup>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다른 방식으로 자료를 구분하기도 한다. 스멘트(R. Smend)와 아이스펠트(O. Eissfeldt)와 포러(G. Fohrer)는 이 본문에서 P를 제외하고, 그 자리에 J1이나 L, N을 대신 위치시킨다.<sup>29</sup> 차일즈(B. S. Childs)는 여전히 이 이야기를 J, E, P 자료로 구분하고, 이 이야기에서 P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당한다. 그는 이 본문에서 P의 독특성은 P가 E 자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sup>30</sup> 그는 J가 13:21-22, 14:5b, 6, 9aα, 10bα, 11-14, 19b, 21aβ, 24, 25b, 27aβb, 30, 31을, E가 13:17-19, 14:5a, 7, 19a, 25a를, P가 13:20, 14:1-4, 8, 9aβb, 10abβ, 15-18, 21aαb, 22-23을 기록했다고 주장한다.<sup>31</sup> 그러나 볼츠와 루돌프는 E의 존재를 거부하는데,<sup>32</sup> 그들의 주장은 폰 라베나우(K. von Rabenau)의 자세한 연구에 의해 지지를 받는다.<sup>33</sup> 반 세터스도 이 본문에서 E를 제거하고, 이 이야기를 두 개의 자료층으로 구분한다: J 기본층(13:17-22, 14:5-7, 9aα, 10-14, 19-20, 21aβγ, 22a, 23, 24, 25b, 27aβb, 28, 30-31)과 P 첨가(14:1-4, 8, 9aβb, 15-18, 21a, 22b, 25a, 26-27a, 29).<sup>34</sup> 반 세터스에 따르면, J

28 J. Wellhausen, *Die Composition des Hexateuchs und der historischen Bücher des Alten Testaments*<sup>3</sup>, Berlin 1899.

29 B. S. Childs, *Exodus*, 219; R. Smend, *Die Erzählung des Hexateuch*, Berlin 1912; O. Eissfeldt, *Baal Zaphon, Zeus Kasios und der Durchzug der Israeliten durchs Meer*, Halle 1932; G. Fohrer, *Überlieferung und Geschichte*, Berlin 1964.

30 B. S. Childs, *Exodus*, 219-220.

31 윗글, 220.

32 P. Volz and W. Rudolph, *Der Elohist als Erzähler: Ein Irrweg der Pentateuchkritik?*; W. Rudolph, *Der "Elohist" von Exodus bis Josua*.

33 B. S. Childs, *Exodus*, 219-20; K. von Rabenau, 'Die beiden Erzählungen vom Schilfmeerwunder in Exod. 13, 17-14, 31', *Theologische Versuche*, ed. P. Wätzel, (Berlin, 1966), 9-29.

34 J. Van Seters, "The Pentateuch," 35-44; idem, *The Life of Moses: The Yahwist as Historian in Exodus-Numbers*.

는 신명기 사가 이후의 자료층이다.<sup>35</sup> 그는 신명기 혹은 신명기 전승은 징조나 기적에 대한 어떤 자세한 설명도 없이 단순히 출애굽 사건을 단언하므로 상상력이 풍부한 J 기사가 이것들을 더해 전체 사건을 재구성했다고 주장한다.<sup>36</sup> 베벤(M. Vervenne)은 이 본문에서 비제사장 전승의 기본층과 제사장 편집층을 찾아낸다.<sup>37</sup> 블룸(E. Blum)은 이 이야기가 신명기 사가의 설화와 여기에 결합한 P 편집자의 구성층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sup>38</sup> 베르너(C. Berner)는 이 본문이 비제사장 자료층에 제사장 편집층이 첨가되고 여기에 P 이후의 광범위한 첨가가 더해져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sup>39</sup> 다수의 학자는 이 이야기가 제사장 자료층과 비제사장 자료층의 결합으로 형성된 본문으로 이해한다.<sup>40</sup> 이러한 특징들 중에 하나는 신명기 사가 혹은 신명기적 편집을 오경의 J, P보다 더 초기의 자료라고 주장하는 것이다.<sup>41</sup>

이 연구를 통해 출애굽기의 홍해 바다 도하 이야기는 단순한 문서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소논문은 기존의 연구 결과와 최근의 연구 동향을 반영해 이 설화의 문서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 3. 본문의 자료층 분석

출애굽기 13장 17절-14장 31절에는 홍해 바다에서의 기적을 묘사하는 다양한 이야기와 표현이 나타나고 흐름의 단절과 다른 설화자의 목소리의 갑작스러운 등장, 기적 묘사의 반복과 강조 등이 나타나므로 이 본문에서 본문의 문학적 통일성과 일관성을 찾기는 쉽지 않다.

#### 1) 제사장 자료층(Priestly Layer)

구약성경에서 가장 박진감 넘치는 설화이며, 강력한 기적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본문에서 이 이야기의 기본적인 흐름을 주도하는 자료층은 P이다. 이 본문의 P 자료는 주로 야훼의 명령과 성취, 야훼에 의해 마음이 완악해진 바로의 박해와 애굽 군대의 추격, 바다에서의 기적과 기적 수행자로서의 모세의 역할, 모세의 기적 수행을 돕는 야훼와 애굽 군대의 바다에서의 죽음과 야훼의 영광이라는 흐름으로 이루어진다.<sup>42</sup> 뉘데케(Nöldeke)가 이 본문에서 14:1-4, 8-9, 10\*, 15-18, 21\*, 22-23, 26, 27\*, 28-29가 P 자료에 속한다고 주장한 후 이 본문에 나타나는 P 자료의 구분에는 학자들 사이에 큰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다.<sup>43</sup> 게르츠의 최근 연구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데, 그는 뉘데케의 P 자료층 중에서 14:2bβ, 8b, 9, 16aa만을 P 이후의 확장이나 비제사장(Non-Priestly) 자료로 구분하는 작은 차이를 보인다.<sup>44</sup> 그러나 이들이 간과하는 몇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 본문을 세밀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 설화에서 14:1-4, 8-10, 15-18, 22-23, 26-29를 P 자료층으로 구분한다.

(1) 14:1-4, 8, 9, 17a

www.kci.go.kr



이 부분의 두 핵심적인 요소는 므딕돌과 바다 사이의 비하히롯 앞의 장막(14:2, 9b)과 하나님께서 병거와 마병을 포함한 군대를 통해 이스라엘을 추적하도록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이다(14:4, 8, 9, 17a). 14장 1-4절에서 야훼의 계획이 모세에게 알려진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출발 여정이 강조된다. 노트에 따르면, P는 그 여정이 바로의 이스라엘 추적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한다.<sup>45</sup> 게다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 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다(14:4, 8, 17a). 이 세 구절에는 모두 야훼께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모두 **קָיָם** 동사의 피엘형이 사용된다. 이것은 비제사장(Non-Priestly) 자료의 보도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비제사장 자료에서는 이스라엘이 그 땅의 거주민과 전쟁을 경험하면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 애굽으로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고 보도한다(13:17-19). 이 부분은 바로가 이스라엘을 추격한 원인이 하나님임을 설명하는 P 자료층이다. 이 부분 때문에 이 설화의 자료 간의 긴장과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2) 14:10, 15-18, 22-23, 26-29

14장 15-18절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바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라는 어구는 14장 1-4절의 표현과 연결된다. 널 데케 이후 학자들이 P 자료층으로 구분하는 14장 15-18절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15절이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는 표현은 10절 후반부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추격하는 애굽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고, 11-12절에서 불평한 이후에, 13-14절에서 모

45 M. Noth, *Das zweite Buch Mose*, 86.

세가 야훼의 구원을 볼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신뢰하라고 결론적 선언을 한 이후에 나타난 질문이라서 앞부분과의 연결이 쉽지 않다.<sup>46</sup> 레빈과 베르너는 15-18절의 P가 후대의 첨가이거나 편집적 확장이라서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한다.<sup>47</sup> 블룸은 서기상의 실수로 P 자료의 일부가 소실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sup>48</sup> 그러나 이런 주장은 본문 비평을 통해서도 입증하기 힘든 가정이다. 오히려 10절의 이스라엘의 두려움으로 인한 부르짖음과 15절 이후의 이에 대한 야훼의 응답은 자연스럽게 문맥이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10절과 15절 모두 q[c동사를 사용하여 연결되는데 10절에서는 와우 연속 완료를 사용해 과거의 사실을 기술하고, 15절에서는 단순 미완료 형태로 반복되는 부르짖음을 묘사한다. 11-14절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불평과 이에 대한 모세의 신뢰와 확신의 요구는 10절과 15절의 문맥에 첨가된 후대의 확장(Post-Priestly)으로 보는 것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논의할 것이다.

14장 15-18절의 모세를 향한 하나님 명령과 이스라엘이 마른 땅으로 바다를 건너리라는 약속과 야훼께서 이 일로 영광을 얻고 애굽 사람들이 그분이 야훼인 줄 알리라는 선언은 14장 21-23절과 연결된다. 반 세터스는 14장 15절과 17b-18절의 모세의 신탁 선포에 뒤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은 14장 1-4절과 유사하며 명확히 P로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49</sup> 그리고 14장 16절 전반부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바

46 J. C. Gertz, *윗글*, 101.

47 C. Levin, "Source Criticism," 51; C. Berner, "Meerwunderbericht," 7; *idem*, *Exoduserzählung*, 358-359.

48 E. Blum, *Studien*, 260; *idem*, "Die Feuersäule in Ex 13-14-eine Spur der 'Endredaktion'?" in *The Interpretation of Exodus: Studies in Honour of Cornelis Houtman* (ed. Riemer Roukema; CBET 44, Leuven: Peeters, 2006), 117-137, 134

49 J. Van Seters, *The Life of Moses*, 131.

닷물이 갈라지게 하라는 명령은 14장 26, 27절 전반부의 물을 다시 흐르게 하라는 지시와 대칭을 이룬다. 이 명령은 다시 흐른 물이 바로의 군대를 덮었다는 28절의 내용과 연결되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했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어 이들을 보호했다는 기적 보도로 마무리된다. 14장 16절, 22절, 29절에 나타나는 “마른 땅”(יבשה)이라는 단어는 이 부분의 문맥을 연결해 준다. יבשה는 창세기 1장 9절, 10절의 P 자료에서도 사용되는 단어이다. 따라서 “마른 땅”을 언급하는 16절, 22절, 29절은 P 자료층에 속한다. 14장 29절은 여순은 다르지만, 14장 22절의 반복이다. 29절은 이스라엘의 도하와 애굽 군대의 운명을 강조하기 위한 P 기자의 최종 결론이다. 그런데 14장 21절에도 “마른 땅”이라는 단어가 나타난다. 널데케에서 게르츠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학자는 이 구절을 P 자료로 구분한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사용한 단어는 יבשה가 아니라 הרבה이다. הרבה는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세 개의 물 건너는 이야기에서 모두 사용된다.<sup>50</sup> 여기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논의할 것이다.

## 2) 비제사장 자료층(Non-Priestly Layer)

이 기적 이야기에서 제사장 자료층을 제외한 본문을 통일성 있는 이야기로 읽기는 쉽지 않다.<sup>51</sup> 하지만 이 부분은 이스라엘의 도망으로 야기된 극적인 사건들과 관계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비제사장 자료층은 바로의 군대의 추격과 이로 인한 이스라엘의 두려움과 불평,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 행위 등으로 구성된다.

50 Eun Woo Lee, *Crossing The Jordan* [LHBOTS(JSOTS) 578; London: Bloomsbury T&T Clark, 2013], 136.

51 J. C. Gertz, *윗글*, 104.

비제사장 자료층(Non-Priestly Layer):

13:17-19, 20-22, 14:5-7, 11-14, 19-20, 21, 24-25, 30-31

(1) 13:17-19

13장 17-18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해안 길로 인도하시지 않은 이유를 설명한다. 여기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פלשתים)과 ‘전쟁’(מלחמה)이라는 단어는 신명기 역사서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18절의 “홍해”(הַיָּם)라는 표현은 출애굽기 13장 17절-14장 31절의 전체 설화에서 이 구절에만 나타난다. 이 표현은 출애굽기 15장 4절과 22절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 이름을 이 설화와 결합하기 위한 후대 편집자의 첨가로 보인다.<sup>52</sup> “홍해”(הַיָּם)라는 어구는 요단 도하 이야기(수 4:23)에도 한 번 나타난다.<sup>53</sup> 18절에 나오는 “대열을 지어”(חַמְשֵׁי)라는 단어는 여호수아 3-4장과 열왕기하 2장의 물 건너는 이야기에 나타나(수 4:12; 왕하 2:16). 물론 LXX-여호수아 4장 12절에서는 이 단어를 “다섯 세대”로 번역하고, 열왕기하 2장 16절에서는 모음을 다르게 적어서 “50”이라는 숫자로 이해하지만,<sup>54</sup> 신명기 역사서의 물 건너는 이야기에서 사용되는 חַמְשֵׁי이라는 단어가 이 설화에서도 사용되는 것이다. 19절의 요셉의 유언에 따라 유골을 가지고 출애굽 하는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여호수아까지의 이야기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부분은 창세기 50장 25-26절과 여호수아 24장 32절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편집적 첨가로 보인다. 이 내용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은 P 보도의 홍해 기적 사건과 신명기 역사서의 내용을 연결하기 위한 후대 신명기사가(Post-Priestly Deuteronomistic)의 편집적 첨가로 보인다.

52 윗글, 109.

53 Eun Woo Lee, 위의 책, 138.

54 위의 책, 137.

(2) 13:20-22, 14:19-20

13장 20절의 이스라엘이 숙곳을 떠나 에담에 장막을 쳤다는 내용은 앞 단락과 연결되지 않는다. 앞 단락의 어디에도 이스라엘이 숙곳에 진을 쳤다는 보도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sup>55</sup> 이 구절의 장막은 야훼 임재의 장소로 야훼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는 21-22절과 연결된다. 이 본문에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이 기적 사건의 시점을 설명하기 위한 시도로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본문은 ‘불기둥’에 대한 언급을 통해 이스라엘이 밤에도 이동할 수 있었고 이 기적이 밤에 일어났음을 보여준다(출 13:21-22, 14:19-20, 24).<sup>56</sup> 그리고 ‘구름’과 ‘구름 기둥’에 대한 언급을 통해 후대의 제사장 본문에 나타나는 신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민수기 9장 15-16절이나 출애굽기 40장 36절의 제사장 본문과 이 부분을 연결하는 후대 제사장 자료(Post-Priestly) 첨가로 보인다.<sup>57</sup> 반 세터스는 이 본문의 ‘구름 기둥’과 ‘불기둥’(출 13:21-22; 14:19-20, 24)은 여호수아 3-4장에서 야훼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와 유사하다고 주장한다.<sup>58</sup>

(3) 14:5-7

출애굽기 14장 5절은 새로운 보도로 14장 1-4절과는 연결되지 않는다. 5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허락 없이 바로가 알지 못하게 그 땅에서 도망한다. 이 자료는 출애굽기 12장 34절(P) 이하에 묘

---

55 J. C. Gertz, "The Miracle at the Sea: Remarks on the Recent Discussion about Origin and Composition of the Exodus Narrative," 109.

56 윗글, 111-112.

57 윗글, 113.

58 J. Van Seters, *The Life of Moses*, 136-39, 144.

사된 재앙 사건 이후 이스라엘의 애굽에서의 다급한 출발을 도망과 바로의 마음의 변화에 의한 애굽인들의 추적 동기로 묘사하며 연결하는 것으로 보인다.<sup>59</sup> 14장 5절은 좀 더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14장 3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갇힌 바 되어 바로가 이스라엘을 추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도하지만, 5a절에서는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5b절에서는 그런 사실과 무관하게 바로의 심경에 변화가 생겨 이스라엘을 놓아준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고 보도한다. 5a절에서는 “애굽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5b절에서는 “바로”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전통적으로 학자들은 5a절을 E 자료로, 5b절을 J 자료로 구분했다.<sup>60</sup> 그러나 5b절의 심경의 변화에 대한 보도는 전후 문맥을 고려할 때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 14장 6절에 나타나는 ‘병거’(כּוּכָ)와 7절에 나타나는 “병거 육백 대”와 “모든 병거”라는 표현은 9절에 나오는 P의 “병거”에 대한 언급에 선행하는 구체적인 설명으로 일종의 중복에 해당하는 본문이다. 이 설화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바로가 ‘병거’와 ‘마병’을 앞세워 추격하고, 결국은 ‘병거’와 ‘마병’과 함께 애굽 군대가 바다에서 전멸하는 이야기는 이 설화의 P 기본층에 속한다. 이 내용을 종합하면 14장 5-7절은 이 설화의 내용을 재앙 이야기의 P 자료<sup>61</sup>와 이 본문의 P자료층을 연결하기 위한 후기 제사장(Post-Priestly) 편집층으로 보인다.

(4) 14:11-14

이 부분에는 이스라엘의 불평과 모세의 구원에 대한 확신의 요구

59 위의 책, 130.

60 J. C. Gertz, “The Miracle at the Sea: Remarks on the Recent Discussion about Origin and Composition of the Exodus Narrative,” 114.

61 윗글.

가 나타난다. 그러나 문맥 안에 애굽 군대의 추격 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광야에서의 위험이 강조된 것이 독특하다. 이 본문은 광야의 불평 설화(출 15:24-26; 16:2-3; 17:2-3)와 관련된 확장이다.<sup>62</sup> 모세는 홍해의 기적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강조한다. 이 부분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애굽 군대의 추격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나타나는 14장 10절과 그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는 15-18절 사이에 첨가된 후대의 신학적 확장(Post-Priestly)으로 보는 것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5) 14:21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는 내용은 14장 16절, 22절, 29절에 나타나는 “마른 땅”에 대한 내용과 연결되며 다수의 학자가 주장하는 대로 P 자료층에 속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구절에 나타나는 ‘야훼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다’는 표현은 이 설화에서 처음 나타나는 표현이다. 바닷물과 관련된 ‘바람’(רוח)의 이야기는 창세기 1장 2절(P)을 연상시킨다. 바람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רוּחַ는 엘리야-엘리사의 물 건너는 이야기인 열왕기하 2장 9절, 15절, 16절에도 나타난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단어가 “마른 땅”을 의미하는 אֶרֶץ יבֹשָׁה이다. 이 단어는 출애굽기 14장 16절, 22절, 29절에 나타나는 אֶרֶץ יַבֵּשָׁה와는 다른 단어이다. אֶרֶץ יבֹשָׁה는 여호수아 3-4장과 열왕기하 2장의 요단강 건너는 이야기에도 나타난다(출 14:21; 수 3:17; 4:18; 왕하 2:8). 따라서 이 구절은 제사장 자료층과 신명기 역사서의 바닷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드러나는 기적 사건을 연결하며 이 설화의 기적을 가장 극적으로 묘사하기 위한 후기 제

62 윗글.

사장(Post-Priestly) 편집층이면서 동시에 후기 신명기 사가(Post-Priestly Deuteronomistic) 편집층으로 이 본문에서 가장 후대의 편집층이라고 할 수 있다.

(6) 14:24-25

14장 24절의 야훼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셨다는 내용은 13장 20-22절과 14장 19-20절의 ‘구름 기둥’과 ‘불기둥’ 이야기와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4장 24절에서는 ‘불기둥’이 먼저 나오고 ‘구름 기둥’이 뒤에 나온다. 이렇게 어순이 바뀌어 나타나는 것은 이 설화에서 이 구절이 유일하다.<sup>63</sup> 야훼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내려 보셨다는 표현은 야훼를 초월적 존재로 묘사한 것으로 13장 21-22절과 14장 19-20절의 표현보다 더 후대로 보인다. 여기에서 야훼가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하시니 애굽 군대가 우리가 달아나자고 하는 내용은 열왕기하 6장 8절-7장 20절에서 병거와 많은 군사를 이끌고 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했던 아람 군대가 야훼의 어지럽게 하심에 말과 병거를 버리고 도망간 이야기를 떠오르게 한다. 여기에 나오는 “병거”와 “바퀴”가 결합한 “병거 바퀴”(אָפּן מַרְכַּבַּתִּי)라는 표현은 이 설화에서 단 한 번 사용되었다. “병거”를 의미하는 מַרְכַּבַּת은 구약성경에 124회 사용되는데 그중에 신명기 역사서에 65회 나타나는 신명기 사가의 용어이다. “바퀴”를 의미하는 אָפּן이라는 단어는 구약성경에서 38번 사용되는데 에스겔에서 27번 사용되는 후대의 용어이다. 이 단어는 열왕기상 7장에서 6번 사용된다. אָפּן은 오경 전체에서는 이 구절에만 유일하게 나타난다. 이를 종합하면 출애굽기 14장 24-25절은 13장 20-22절과 14장

63 윗글, 113.



19-20절의 후기 제사장 (Post-Priestly) 편집층보다 후대의 후기 신명기 사가(Post-Priestly Deuteronomistic)의 편집층임을 알 수 있다.

(7) 14:30-31

이 부분은 14장 13-14절(Post-Priestly)의 내용과 연결된다. 14장 13절의 “구원”이란 단어는 30절의 “구원”이라는 단어와 연결된다.<sup>64</sup> 14장 13절에는 “구원”을 의미하는 명사 **יְשׁוּעָה**의 연계형 **יְשׁוּעַת**이 나타나고, 30절에는 **עַשׂ**의 히필 와우연속 미완료형 **עַשִׂי**가 나타나지만, 같은 어원에서 온 것으로 같은 자료층에서 온 것임을 보여준다. 14장 13절의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라는 어구는 30절의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어구와 연결된다. 30절에서 애굽 사람의 손(**כַּף**)에 의해 위협을 받던 이스라엘은 야훼의 구원하시는 권능(**כֹּחַ**)을 경험하게 된다. 이 일로 이스라엘은 야훼를 경외(**אָוַרְתָּ**)하게 되고 야훼뿐 아니라 모세까지도 믿게(**אָמַן**) 된다. **אָמַן**이라는 단어는 오경과 신명기 역사서 모두에 나타난다(창 15:6; 출 4:1, 5, 31; 19:9; 민 14:11; 20:12; 신 1:32; 9:32; 왕하 17:14).<sup>65</sup> 이 부분은 후기 제사장 편집보다 후대의 신명기 사가의 편집 본문(Post-Priestly Deuteronomistic Redaction)으로 이 설화의 최종 결론이다.

#### 4. 나가는 말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이 복잡한 이야기의 흐름을 주도하는 기

64 윗글, 115.

65 윗글.

본층은 제사장 자료층임을 알 수 있었다(14:1-4, 8-10, 15-18, 22-23, 26-29). 여기에 이 설화의 P 자료층을 오경의 다른 제사장 자료층과 연결하기 위한 후기 제사장(Post-Priestly)의 편집층(13:20-22; 14:5-7, 11-14, 19-20)이 첨가되었다. 최종적으로 후기 제사장 자료층과 신명기 사가의 본문을 연결하기 위한 최종 편집층(Post-Priestly Deuteronomistic Redaction)이 첨가되었다(출 13:17-19; 14:21, 24-25, 30-31).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기존에 학자들이 고전적 자료비평을 통해 J, E 자료라고 주장한 본문이 독립적인 자료라기보다는 기본 자료층에 첨가된 편집적 확장이며, 모두 후기 제사장(Post-Priestly) 혹은 후기 신명기 사가(Post-Deuteronomistic)의 편집적인 첨가로 오경의 다른 P 자료나 Dtr과 연결하거나 충돌하는 내용을 수정하거나 주석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후기 신명기 사가의 첨가는 후기 제사장 편집층보다 후대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 이은우, “구약 축전의 발전 과정 연구,” 『구약논단』 17권 1호(2011), 155-178.
- Berner, C. “Gab es einen vorpriesterschriftlichen Meerwunderbericht?” *Bib* 95 (2014): 1-25.
- Blenkinsopp, J. *The Pentateuch: An introduction to the first five books of the Bible* (New York: Doubleday, 1992).
- Blum, E. *Die Komposition der Vätergeschichte* (WMANT 57;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84).
- \_\_\_\_\_. *Studien zur Komposition des Pentateuch* (BZAW 189; Berlin: de Gruyter, 1990), 9-43.
- \_\_\_\_\_. “Die Feuersäule in Ex 13-14-eine Spur der ‘Endredaktion’?” in *The Interpretation of Exodus: Studies in Honour of Cornelis Houtman* (ed. Riemer Roukema; CBET 44, Leuven: Peeters, 2006), 117-137.
- Cross, F. M.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Mass.: Cambridge, 1973).
- Dozeman, T. B. and K. Schmid, *A Farewell to the Yahwist? The Composition of the Pentateuch in Recent European Interpretation*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6).
- Driver, S. R. *The Book of Exodus* (Cambridge 1911).
- \_\_\_\_\_. *Introduction to the Literary of the Old Testament* (Edinburgh, 1913).
- Eissfeldt, O. *Baal Zaphon, Zeus Kasios und der Durchzug der Israeliten durchs Meer*, Halle 1932.
- Fohrer, G. *Überlieferung und Geschichte*, Berlin 1964.
- Gertz, J. C. *Tradition und Redaktion in der Exoduserzählung: Untersuchungen zur Endredaktion des Pentateuch* (FRLANT 186;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0).
- \_\_\_\_\_. “The Miracle at the Sea: Remarks on the Recent Discussion about Origin and Composition of the Exodus Narrative,” in T. B. Dozeman, C. A. Evans, J. N. Lohr (eds), *The Boo of Exodus* (Leiden: Brill, 2014), 91-120.
- \_\_\_\_\_. “Elohist,” in *Encyclopedia of the Bible and its Reception* 7 (Berlin: de Gruyter, 2014), 777-781.
- Gertz, J. C. K. Schmid & M. Witte (eds), *Abschied vom Jahwisten* (Berlin: NY: Walter de Gruyter, 2002).
- Levin, C. “The Yahwist and the Redactional Link between Genesis and Exodus,” in

- T. B. Dozeman and K. Schmid, *A Farewell to the Yahwist? The Composition of the Pentateuch in Recent European Interpretation*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6), 131-141.
- McKenzie, S. L. and W. P. Graham (eds), *The Hebrew Bible* (Louisville KY: Westminster/John Knox, 1998)
- Nöldeke, T. "Die s.g. Grundschrift des Pentateuchs," *Untersuchungen zur Kritik des Alten Testaments* (Kiel: Schwers, 1869), 1-144.
- Noth, M. *Das zweite Buch Mose: Exodus/ Das Alte Testament Deutch* (Teilband 5),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3).
- Otto, E. "Die nachpriesterliche Pentateuchredaktion im Buch Exodus," in *Studies in the Book of Exodus: Redaction-Reception-Interpretation* (ed. Marc Vervenne; BETL 126; Leuven: Peeters, 1996), 61-111.
- Rendtorff, R. *Das überlieferungsgeschichtliche Problem des Pentateuch* (BZAW 147; Berlin: de Gruyter, 1977), trans. J. J. Scullion, *The Problem of the Process of Transmission in the Pentateuch* (JSOTSup 89;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0).
- Römer, T. *Israels Väter: Untersuchungen zur Väterthematik im Deuteronomium und in der deuteronomistischen Traditio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0).
- Rudolph, W. *Der "Elobist" von Exodus bis Josua* (BZAW 68; Berlin: Tpelmann, 1938).
- Schmitt, H-C. "'Priesterliches' und 'prophetisches' Geschichtsverständnis in der Meerwundererzählung Ex 13,17-14,31," in *Theologie in Prophetie und Pentateuch* (ed. Ulrike Schorn and Matthias Büttner; BZAW 310; Berlin: de Gruyter, 2001), 203-219.
- Smend, R. *Die Erzählung des Hexateuch*, Berlin 1912.
- Van Seters, J. *The Life of Moses: The Yahwist as Historian in Exodus-Numbers*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2).
- \_\_\_\_\_. 'The Pentateuch' in S. L. McKenzie and W. P. Graham (eds), *The Hebrew Bible* (Louisville KY: Westminster/John Knox, 1998), 3-49.
- Vervenne, M. "The 'P' Tradition in the Pentateuch: Document and/or Redaction? The 'Sea Narrative' (Ex 13, 17-14, 31) as a Text Case," in *Pentateuchal and Deuteronomistic Studies: Papers read at the xiiiith IOSOT Congress Leuven 1989* (ed. C. Brekermans and J. Lust; betl 94; Leuven: Peeters, 1990), 67-90.
- Volz, P. and W. Rudolph, *Der Elobist als Erzähler: Ein Irrweg der Pentateuchkritik?*

(Giessen: Alfred Toppelman, 1933).

Von Rabenau, K. 'Die beiden Erzählungen vom Schilfmeerwunder in Exod. 13, 17-14, 31', *Theologische Versuche*, ed. P. Wätzel, Berlin 1966, 9-29.

Wellhausen, J. *Die Composition des Hexateuchs und der historischen Bücher des Alten Testaments*<sup>3</sup> (Berlin, 1899).

검색어

홍해, 제사장 자료층, 비제사장 자료층, 후기 제사장 편집층,  
후기 신명기사가의 편집층

[ ABSTRACT ]

## Searching for a New Direction in Literary Criticism of the Pentateuch: Focusing on Exodus 13:17-14:31

Eun Woo Lee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various source layers that appear in this text through a literary critical study of Exodus 13:17-14:31. Through this study, the present writer tries to find answers to some fundamental questions about the recent literary criticism of Exodus and the Pentateuch. In particular, the writer tries to find a new way to classify and understand the traditional J and E sources, which have recently been classified as non-priestly layers by scholars.

In this study, the writer reveals that the layer that leads the basic flow in this story of crossing the Red Sea is P. The P material in this text is mainly YHWH's command and fulfillment, the persecution of Pharaoh whose heart was hardened by YHWH, the pursuit of the Egyptian army, the miracle at sea and the role of Moses as a miracle performer, YHWH helping Moses perform the miracle, and the death of Egyptian armies in the sea and the glory of YHWH. In this account, the writer classifies 14:1-4, 8-10, 15-18, 22-23, 26-29 as the P layer.

In this miracle story, it is not easy to read the text as a unified story except for the priestly material layer. However, it can be seen that this part is related to the dramatic events caused by Israel's flight. Therefore, this non-priestly layer consists of the pursuit of Pharaoh's army, Israel's fears

www.kci.go.kr

and complaints, and God's miracles and acts of salvation to save Israel.

The writer divides 13:17-19, 20-22, 14:5-7, 11-14, 19-20, 21, 24-25, 30-31 into the non-priestly layer of the text. This non-priestly layer is composed of the post-priestly editing layer (13:20-22; 14:5-7, 11-14, 19-20) and the post-priestly deuteronomistic redaction (Exodus 13:17-19; 14:21, 24-25, 30-31). Through this study, we find that the texts that scholars previously claimed to be sources J and E through classical source criticism are editorial extensions added to the basic layer rather than independent sources, and they are all post-priestly or post-deuteronomistic layers. It can be confirmed that this is a post-deuteronomistic addition. And we assert that the addition of post-deuteronomistic layer was made later than the editorial work of the post-priestly layer.

key words

Red Sea, Priestly Layer, Non-Priestly Layer, Post-Priestly Redactional Layer, Post-Deuteronomistic Redactional Layer

투고일: 2023년 02월 24일

심사일: 2023년 02월 27일

게재 확정일: 2023년 02월 27일

www.kci.go.kr